

1-2.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 현 경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초 록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정신적 장애인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정신적 장애인 근로실태 일반적 특성 분석, 월평균 근로소득 특성분석,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관련 특성, 취업 및 직업능력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T검정 및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 장애인 근로실태의 일반적 특징은 남자가 87.7%로 대부분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4%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장애등급은 3급이 56.7%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장애상태는 86.1%가 고착 상태였으며, 직종은 80.0%가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직장 내 지위는 일용 근로자가 47.2%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 장애인 월평균 근로소득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등급, 장애기간, 장애상태, 건강상태, 일상생활 만족도, 직종, 지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임금지급방식, 자격증 보유여부 등 총 15개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는 근로지위, 직종, 연령, 장애기간, 평균근무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특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개발 및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녕 및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주제어: 정신적 장애인, 근로특성, 근로소득, 삶의 질, 직업재활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WHO, 2004).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 정신질환자 격리, 수용중심, 장기입원으로부터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의미는 다양하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는 과정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사회통합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금진, 2002).

정신분열병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으로 직업재활 영역을 들었으며(Anthony & Liberman, 1986), 직업재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적 측면이 정신장애인 재활의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 복지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금진, 2003).

그러나 이러한 직업재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심각한 사회적인 편견과 열악한 재활서비스 속에서 제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따르면, 재가 정신장애인의 수는 9만 천명으로 2000년(7만 천명)에 비해 2만 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57%로 2000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0.2%정도 낮아졌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40.0%로 전체장애인 실업률(23.1%)보다 2배정도 높고, 전체 노동시장의 실업률 3.6%(2005년 6월, 통계청)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후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하여, 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이 114.9만원인데 비해, 취업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54.8만원으로서 이것은 일반취업근로자 월평균 임금 258만원(2005년 6월, 통계청)의 21.2%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의 의무고용제(quota system)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실업률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전체 노동시장 안에서 또한 장애인 노동시장 안에서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의 중요성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관련근거제공 연구로써 정신장애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장애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취업특성 등을 파악하고, 둘째, 정신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건강수준별, 취업특성별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며, 셋째,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취업특성이 정신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장애인 및 정신적장애인의 개념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의 의미를 규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정신장애의 개념이 단순히 병리학적인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문화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 진행과정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사회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문인숙, 양옥경, 1999)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기 전부터 정신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정신장애인이란 증상의 치료적 입장은 물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재활의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며, 전인적 맥락에서 다루어 지게 되었다(이금진, 200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1)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